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四書 教育 內容에 對한 考察

李 敦 錫*

<目 次>

I. 序論	1. 經文 題材 選定의 問題
II. 漢文教科書의 四書 經文 受容 樣相	2. 教科書 體制와 構成의 問題 3. 教育課程의 問題
III. 漢文科 教育에서의 四書教育의 問題點	IV. 結論

<국문 초록>

四書는 漢文學뿐만 아니라 漢文教育에서 기초적 교육내용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문교과교육에서 四書教育은 한국한문학에서의 四書教育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는 중등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교육되어지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에서 교육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서의 교육 내용을 교육의 목적에 맞도록 제재를 선정해야하며 사서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기존의 사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서교육의 제재 선정의 문제점과 교과서 체제와 구성의 문제점, 그리고 사서교육의 중요한 내용인 유학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서에 대한 교육과정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四書教育’ 나아가 ‘經書教育’에 대해 교육 내용을 조직화·체계화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봄으로써 지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강사 / chstjr@hanmail.net

금까지 사서교육이 단순히 ‘중요하다’라는 추상적 생각에서 벗어나 한문교과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에서도 ‘四書’ 나아가 ‘經書’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내용, 목표,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교육 내용과 영역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經書, 四書, 題材選定, 教材構成, 四書教育, 教育課程

I. 序論

韓國 漢文學 작가들은 儒學의 經典을 기본 행위의 준칙으로 삼고 經典의 내용을 탐독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경전을 통해 학문과 수양, 글쓰기의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창작된 한국 한문학 작품들 속에는 유학 경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투영되어 있어 유학 경전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써 경전은 한국 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기초교육 교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경전교육은 한국한문학이 아닌 한문교과교육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생활교육’, ‘인간이해교육’, ‘인간존중교육’, ‘지혜교육’, ‘실천교육’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더해준다고 하였다.¹⁾

위의 진술과 같이 경전교육은 한문교과교육과 한국한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보편성과 교과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문 교육학 또는 한문교과교육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서는 모 학문적 관점과 교육학적 관점이 있다. 모 학문적으로 접근하였을 경우에는 교과와 교과의 배경이 되는 학문을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한문 교육학을 기초 학문인 한문학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교과의 배경이 되는 학문이나 예술을 깊이 연구하면 곧 교과교육의 방향이 정해진

1) 송영일, 『한문 교육론』, 장서원, 2004, p.198. 참조.

다고 보는 생각으로 한문 교육학을 한문학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문 교육은 ‘한문학 관련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논의 또한 이 관점에서 배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학적으로 접근하였을 경우에는 교과와 학문을 동일시하는 학문에 의해 종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과는 학문 그 자체가 아니라 학문과 교육과의 결합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이다. 또한 학문과 교육의 결합을 한문학과 교육학의 산술적인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교과의 내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 곧, ‘교과 내용론’과 교과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 즉, ‘교과지도론’ 각 영역이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교과 내용론’과 ‘교과지도론’이 한문 교육학이라는 총체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과 상호조율을 한다는 관점인 총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²⁾

이러한 교육학적 관점으로 경전을 바라보았을 경우 경전에 대한 보편성은 한국한문학 작품을 독해하여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교과 교과교육으로서의 경전은 ‘교과’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교과’라는 특수성은 일반 한문학 연구자들이 공부하는 경전의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수자’, ‘학습자’ 등이 ‘한문교과 교육’에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경전의 내용은 대부분 ‘四書’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고등학교 교과서 四書와 관련된 논의와 차별성을 두고³⁾, 기존의 경전교육의 인식인 經典+教育이 經典教

2) 김왕규, 「한문 교육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서설」, 『대동한문학』 제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참조.
3) 김은경, 「대학 읽기의 전통적 관점과 한문 교과서 수용 양상 연구」, 『한문 고전연구』 제1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손인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논어의 해석에 대한 연구」, 『한문학논집』 제27집, 근역한문학회, 2008.; 원윤숙,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사서경문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송석준·최윤용, 「중등

育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고 범위를 좁혀 四書+教育이 사서교육이라는 틀 밖에서 고등학교 四書 교육의 문제점을 밝혀볼 것이다.

II. 漢文教科書의 四書 經文 受容 樣相

현재 고등학교 한문과목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역시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四書’는 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10종의 경서 단원의 사서 경문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또한 각 교과서에 경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의 체제와 구성을 살펴보았다. 한문 교과서 10종에 수용된 사서의 經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四書 經文

원문 내용	교과서	출전	빈도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교학	논어	6회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금성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오?	두산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정진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중앙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천재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仁사상의 교육적 의미, 『교육연구』 제14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원문 내용	교과서	출전	빈도
子貢이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잇가?” 子曰, “其恕乎인저,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라.”	금성	논어	3회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잇가?” 子曰, “其恕乎인저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정진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두산		
子曰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하고 其不善者而改之니라.	대한	논어	2회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하고 其不善者而改之니라.	두산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 이리요.	금성	논어	2회
季康子가 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라.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 이리요.”	새한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라.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니니 然後에 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輕하니이다.	대학서림	맹자	2회
孟子曰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니라.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奢侈를 無不爲己이니 及陷於罪한 然後에 從而刑之면 是罔民也니 焉有仁人 이 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대한		
孟子 對曰: “王이 好戰하시니 請以戰喻하리이다. 塡然鼓之하여 兵刃既接이어든 棄甲曳兵而走하되 或百步而後止하며 或五十步而後止하여 以五十步로 笑百步하면 則何如하니잇고.” 曰: “不可하니 直不百步耳인정 是亦走也니이다.”	새한	맹자	2회
“王이 好戰할새 請以戰喻하리이다. 塡然鼓之하여 兵刃既接이어든 棄甲曳兵而走하되 或百步而後에 止하고 或五十步而後에 止하여 以五十步로 笑百步則何如요?” 曰 “不可라. 直不百步耳인정 是亦走也라.” 曰 “王이 如如此면 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소서.”	지학		

원문 내용	교과서	출전	빈도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라. 舍其路而弗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이 有 鷄犬放則知求之하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정진	맹자	2회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은 人路也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니 哀哉라! 人有鷄犬放이면 則知求之하되 有放心이면 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중앙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 中也者는 天下之大本也요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니라. 致中和면 天地位焉하고 萬物育焉이니라.	금성	중용	2회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라. 中也者는 天下之大本也요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니라. 致中和면 天地位焉하며 萬物育焉이니라.	중앙		
子曰 “君子는 食無求飽하며 居無求安하며 敏於事而慎於言이오,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好學也已니라.”	교학	논어	1회
子曰 “後生이 可畏니 焉知來者之不如今也리요. 四十五而無聞焉이면 斯亦不足畏也已니라.”	교학	논어	1회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금성	논어	1회
孔子曰, “益者三友요 損者三友니 友直하고 友諒하며 友多聞이면 益矣니라.”	금성	논어	1회
子曰 : “人而不仁이면 如禮何며 人而不仁이면 如樂何오.”	대학서림	논어	1회
樊遲가 問仁한대 子曰 : “愛人”이라 問知한대 子曰 : “知人이라”하다.	대학서림	논어	1회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하나니 孝悌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저.	대학서림	논어	1회

원문 내용	교과서	출전	빈도
顏淵이 問仁한대 子曰：“克己復禮爲仁이라 ... 爲仁은 由己而由人乎哉아.”	대학서림	논어	1회
齊景公이 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이니이다.”	대학서림	논어	1회
仲弓이 問仁한대 子曰：“...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라.”	대학서림	논어	1회
子曰 君子는 謀道하며 不謀食하나니 耕也에 餽在 其中矣요 學也에 祿在其中矣니 君子는 憂道요 不憂貧이니라.	대한	논어	1회
不患人之不已知요, 患不知人也니라.	두산	논어	1회
人無遠慮면 必有近憂니라.	두산	논어	1회
過而不改가 是謂過矣니라.	두산	논어	1회
衆이 惡之라도 必察焉하고, 衆이 好之라도 必察焉이니라.	두산	논어	1회
子曰 巧言令色이 鮮矣仁이라.	새한	논어	1회
子曰 歲寒然後에 知松柏之後凋也니라	새한	논어	1회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	새한	논어	1회
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 니이다.” 子出하니 門人問曰, “何謂也오.”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니라.”	정진	논어	1회
子貢이 問政한데 子曰 “足食足兵이면 民信之矣리 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三者에 何先 이리잇고?” 曰 “去兵이니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 댄 於斯二者에 何先 이리잇고?” 曰 “去食이니 自古 로 皆有死어니와 民無信이면 不立이니라.”	지학사	논어	1회
曾子曰 “吾日三省吾身하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아?니라.”	천재	논어	1회

원문 내용	교과서	출전	빈도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하니라.”	천재	논어	1회
人性之善也가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하며 水無有不下니라.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頰하고 激而行之면 可使在山하니 是豈水之性哉리오. 其勢則然也니 人之可使爲不善은 其性亦猶是也니라.	금성	맹자	1회
君子有三樂에 而王天下는 不與存焉이니라. 父母俱存하며 兄弟無故가 一樂也요 仰不愧於天하며 俯不作於人이 二樂也요 得天下英才하여 而教育之가 三樂也니 君子有三樂에 而王天下는 不與存焉이니라.	천재	맹자	1회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금성	대학	1회
所謂誠其意者는 毋自欺也니 如惡惡臭하며 如好好色을 此之謂自謙이니 故로 君子는 必慎其獨也니라.	금성	대학	1회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는 先治其國하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修其身하고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在格物이라.	지학사	대학	1회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教니라. 道也者는 不可須臾離也니 可離면 非道也라. 是故로 君子는 戒慎乎其所不睹하며 恐懼乎其所不聞이니라.	지학사	중용	1회

위의 <표1>처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용된 사서 경문은 반복되는 문장을 제외하면 총 35개이다. 그 중 『논어』가 25개로 가장 많았고, 『맹자』 5개, 『대학』 3개, 『중용』 2개였다. 또한 반복 되는 문장으로 『논어』는 「學而」 1장 총 6회, 「衛靈公」 23장 3회, 「述而」 21장 2회, 「顏淵」 17장 2회였다. 그리고 『孟子』는 「梁惠王 上」 3장 2회, 「梁惠王 上」 7장 2회, 「告子 上」 11장 2회였고, 『중용』은 중용장구 1장이 2회 반복되었다. 우선, 『논어』의 경문이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용된 이유는 『논어』의

특성상 문장이 짧고, 그 속에 함축된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제한에서 다른 사서들보다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시적으로 『논어』에 반복된 문장을 살펴보면 「學而」 1장은 『논어』의 首篇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수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朱子도 밝혔듯이 『논어』의 首篇은 “기록한 내용이 근본을 힘쓰는 뜻이 많으니, 바로 道에 들어가는 문이요 德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⁴⁾라고 하였다. 즉,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衛靈公」 23장은 『논어』의 ‘愨’ 사상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문장이고, 「述而」 21장과 「顏淵」 17장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親舊’의 의미와 자신이 숭선하여 바르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용된 것 같다. 『맹자』의 「梁惠王 上」 3장은 ‘五十步百步’라는 성어에 대한 原文古事의 소개, 「梁惠王 上」 7장은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주는 정치, 곧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상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告子 上」 11장은 ‘仁’과 ‘義’에 대한 경문으로 ‘仁’과 ‘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있고, 『중용』의 장구 1장은 『중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中’, ‘和’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 자세하게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회씩 나온 경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서의 철학적 사상보다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제재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었다. 즉, 四書의 철학적 사상보다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마음가짐과 바른 생활 태도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사서의 경문은 한 章의 문장에서 교육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孟子』는 경문이 길기 매우 길기 때문에 한 章의 경문을 모두 실기에는 분명 한계가

4) 『論語』, 「學而」, “所記多務本之意, 乃入道之門, 積德之基, 學者之先務也.”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표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경문을 제시할 경우 ‘띄어쓰기’, ‘문장부호’, ‘懸吐’, ‘고유명사에 밑줄’을 이용하고 있다. ‘띄어쓰기’은 사서 원본의 경문들은 모두 붙어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이용하였다. 또한, ‘문장부호’, ‘현토’, ‘고유명사에 밑줄’은 학습자들이 경문을 해석할 경우 혼동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경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Ⅲ. 漢文科 教育에서의 四書教育의 問題點

1. 經文 題材 選定の 問題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 고유의 사유 체계를 가진다. 그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 온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접한 삶의 지혜를 언어적으로 추상화하고 체계화시킨다. 동양의 사상은 대부분 중국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전을 접하면서, 철학이나 사상의 깊이를 더해 왔다.⁵⁾ 또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의 여러 철학과 사상적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다. 특히 조선 개국 후 宋나라 朱熹의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經書는 유학자의 학습해야할 필수 교재가 되었다. 이러한 성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저술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서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과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서 교육 내용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 현재 한문과 교육에서 四書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四書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하면 사서 교육의 목표를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육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71.

<표2> 7차 교육과정 하위 목표⁶⁾

- 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 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다.
- 나. 한자어를 바르게 읽고 쓰며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 다.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 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마.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위는 7차 교육과정해설서 하위 목표이다. 四書 교육과 가장 관련된 내용을 추출해보면 ‘가~다’, ‘마’는 四書 외의 다른 텍스트를 학습하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한문 교육의 일반적인 교육 목표이다. 그러나 ‘라’의 ‘선인들의 삶과 지혜’라는 목표에 철학을 포함 시킨다면 사서 교육과 가장 연관된 교육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사서 교육의 교육 목표는 바로 선인들의 철학적 사유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교과서에서 이러한 선인들의 철학적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 과연 四書의 경문 내용 중 어떠한 제재를 선정했는지 위 <표1>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우선 『논어』는 유교 철학과 관련된 제재로 크게 ‘仁’, ‘忠恕’, ‘正名’으로 나누어진다.

‘仁’ 관련 경문

- 樊遲가 問仁한대 子曰: “愛人”이라 問知한대 子曰: “知人이라”하다.
-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하나니 孝悌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저.
- 顏淵이 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爲仁이라 ... 爲仁은 由己而由人乎哉아.”

6) 교육부, 위의 책, p.16.

- 仲弓이 問仁한대 子曰 :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라.”

‘忠恕’ 관련 경문

- 子貢이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잇가?” 子曰, “其恕乎인저,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라.”
- 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니이다.” 子出하니 門人問曰, “何謂也오.”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니라.”

‘正名’ 관련 경문

- 齊景公이 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 “君君臣臣父父子子이니이다.”

교과서에 수용된 『논어』 경문 25개 가운데 유학 철학과 관련된 제제는 7문장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경문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 학문에 대한 태도 등 가치관과 관련된 제제가 대부분이었다.

『맹자』는 5개의 문장 중에서 ‘仁和 義’, ‘性善’과 관련된 제제로 선정되어 있다.

‘仁’과 ‘義’ 관련 경문

-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라. 舍其路而弗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 하나니 哀哉라. 人이 有 鷄犬放則知求之하되 有放心而不知求 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性善’ 관련 경문

- 人性之善也가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하며 水無有不下니라.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顛하고 激而行之면 可使在山하니 是豈水之性哉리오. 其勢則然也니 人之可使爲不善은 其性亦猶是也니라.

총 5개의 경문 중에서 유학 철학과 관련된 내용은 2개였고, 나머지 경문은 ‘五十步百步’의 고사와 복지국가, 군자의 즐거움과 관련된 제제를 수용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총 3개를 제시하였다. ‘三綱領’과 八條目, ‘誠意’와 관련된 제재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는 先治其國하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修其身하고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在格物이라.
- 所謂誠其意者는 毋自欺也니 如惡惡臭하며 如好好色을 此之謂自謙이니 故로 君子는 必慎其獨也니라.

마지막으로 『중용』은 2개의 경문을 제시하였다. 모두 유학관련 제재로 ‘中·和’와 ‘性·道’와 관련된 경문이었다.

-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 中也者는 天下之大本也요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니라. 致中和면 天地位焉하고 萬物育焉이니라.
-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教니라. 道也者는 不可須臾離也니 可離면 非道也다. 是故로 君子는 戒慎乎其所不睹하며 恐懼乎其所不聞이니라.

위의 경문의 제재를 살펴보면 대부분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문이 많았고 유학의 철학적 사상의 내용을 많이 담기 보다는 일반적인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인성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사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분명 유학의 철학에 대한 이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학적 사상 보다는 가치관 형성에 치중되는 경문 선택은 사서 교육이, 곧 인성교육 혹은 가치관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내용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교과서에서 반영되었던 경문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었다. 사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문 혹은 그동안 많이 사용되었던 경문 등, 경문의 제재를 선정할 때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래에 기술되겠지만,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

정의 목표가 달라진 상황에서도 사서의 경문에 대한 제재 선정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시된 경문의 내용만으로 경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는 사서 경문의 한 章 전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발췌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경문의 문장이 길기 때문에 다소 축약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발췌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발췌는 경문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표1>의 『論語』 경문 중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이라는 것만을 제시하였을 경우 경문의 본뜻은 ‘恕’에 대한 설명이지만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바른 인간관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孟子』에서는 “王이 好戰할새 請以戰喻하리다.……曰 “王이 如知此면 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소서.””라고 경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분적 발췌는 맹자가 전쟁에 비유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 말라’라고 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즉, 경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장의 경문을 모두 교과서에 제시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경문의 문장이 긴 경우 경문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췌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教科書 體制와 構成의 問題

현재 10종이나 되는 한문 교과서의 체계와 구성은 매우 유사하다. 한문 교과서 체계의 경우 대부분 ‘대단원’-‘소단원’으로 단원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목표가 소단원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않는 점이다.

<표3> K 교과서의 학습 목표

대단원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명	소단원 학습 목표
근본의 이해	1. 한자, 한자어의 익힘과 활용 1) 학습한 한자·한자어를 언어 생활과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2) 허자의 쓰임을 알고 문장 풀이에 스스로 활용한다. 2. 문장의 이해와 활용 1) 문장의 구조와 형식을 통하여 문장을 이해한다. 2)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마음을 닦자	* 학습한 한자·한자어를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 대학과 증용의 구절을 통하여 동양 사상의 근원을 이해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른다.
		조화가 으뜸	* 학습한 한자·한자어를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 논어의 구절을 통하여 조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른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 학습한 한자·한자어를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선인들의 생각을 잘 새겨본다.

본 교과서의 대단원 제목은 “근본의 이해”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한 것 같다. 그런데 대단원의 제목과 대단원 학습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대단원의 제목인 ‘사람 마음의 근본’에 대한 내용이 대단원 학습목표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편적으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는 내용으로 ‘인간 마음의 근본’이라는 내용을 반영하였다면 다소 억지스러울 것이다. 이는 대단원 제목과 같은 경우 인간마음의 근본에 관한 것 즉, ‘四端’, ‘七情’과 같은 근본적인 교육내용을 담아야 하지만, 건전한 가치관과 같은 경우는 ‘인간마음의 근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근본적 마음이 발현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단원의 제목과 소단원의 학습목표도 불일치하고 있다. ‘마음을 닦자’라는 소단원 제목이 소단원 학습 목표에서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로써 소단원의 평가와 대단원의 단원의 마무리 내용에서도 학습목표와 전혀 상관없는 한자의 쓰임과 활용,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비단 위의 교과서만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은 아니다. 다른 여러 종류의 교과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소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다음과 같다.

제목 ▶ 들어가기 ▶ 학습목표 ▶ 본문 ▶ 기본학습 ▶ 보충학습
▶ 심화학습 ▶ 이야기 마당 ▶ 확인 평가

대부분의 교과서는 위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구성은 사서 학습에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들어가기’와 같은 내용에서는 본문의 사서 경문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특히 『논어』와 『맹자』의 경우 경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춘추전국시대의 시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선행학습 되어야만 경문의 이해가 쉽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해 몇 개의 교과서에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 혹은 사서라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도 많은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습목표’에 있어서도 본문의 경문 내용에 대한 학습목표라기 보다는 일반적 한문교과의 교육목표를 기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논어 경문에 대한 학습목표를 ‘1. 한자, 한자어의 익힘과 활용’, ‘2. 문장의 이해와 활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목표의

명세화는 본문의 교육 내용을 학습할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보다 자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진술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문인 경문 내용의 제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표1>에 나타나듯이 여러 종의 교과서에서 『논어』의 똑같은 경문을 제시하였는데 문장 부호나 현토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

1.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2.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3.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오?
4.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5.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6.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1-1 季康子가 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 “政者는 正也라.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우선, 문장 부호의 통일을 살펴보면 1번의 경우 ‘曰’ 뒤에 아무런 문장 부호가 없다. 또한, ‘?’의 문장부호도 사용하고 않고 있다. 그러나 3번은 ‘?’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였고 4번은 “”와 마지막에 ‘?’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였다. 1-1의 경우 ‘曰’ “:”의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문장부호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중국의 16종 표점 부호를 사용하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표준국어 부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호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통일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토에 있어서도 1번의 경우 ‘有朋이’라고 하여 ‘이’의 현토를 사용하였고, 2번과 6번의 경우 ‘이’의 현토를 붙이지 않았다. 현토는 해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현토가 통일 되지 않는다면 문장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1번의 경우 ‘이’의 현토를 사용한다면 ‘有朋’을 ‘어떤 벗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2번과 5번의 경우처럼 현토가 없다면 ‘有~者’ 구문에서 ‘者’가 생략된 형태로 ‘~하는 사람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3번의 경우 다른 교과서에서는 모두 ‘아’의 현토를 사용하였지만 ‘오’라고 하였다. 의미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현토를 사용하는 이유인 정확한 해석과 경문을 聲讀했을 경우 편안한 발음을 위한 것임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과서에 제시하는 경문은 교과서를 검정하는 기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주어 통일성 있게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教育課程의 問題

한문과가 1972년 독립 교과로서 위상을 가진 이후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과 수업시간에 주어진 교과서를 이용하여 그 교육 내용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과거 교과서부터 현재 7차 교육과정 이 반영된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千篇一律적이라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다.⁷⁾ 특히 四書의 경우는 그 교육 내용이 경문의 양적 차이만 있을 뿐 과거 기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조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7) 이동재,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한문교과서 개발의 방향」, 『한자한문 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원용석,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내용 및 수준문제 고찰」, 『한자한문 교육』 제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4.; 장호성, 「한문과 교재의 문제」, 『한문 교육연구』 제2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반영되고 있는 사서에 대해 교육목표, 교육 내용 선정, 평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7차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경서 혹은 사서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서 혹은 사서에 대한 기술내용을 살펴보겠다.

<표4>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제시한 경서에 대한 내용

7차 교육 과정	한문	<p>[한문-(10)] 한문 학습을 통하여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p> <p>『논어(論語)』나 『맹자(孟子)』는 중국이나 일본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전이기도 하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고전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진리를 탐구하여 자신들의 정신문화를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왔다. 우리의 정신문화는 독자적인 민족 문화와는 별도로 일정 부분 한자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의 학습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함은 물론, 21 세기를 살아가는 세계화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인문적 교양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한문으로 된 고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동양적, 고전적 교양의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한자 문화권에서 주체적이며 조화롭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한문 고전	<p>[한문-(6)] 사상류 산문을 풀이하고 내용을 이해한다.</p> <p>중국 철학과 사상은 중국인의 오랜 역사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체계화된 것이다. 특히, 유가와 도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은 중국의 역사가 격변하던 춘추 전국 시대에 발생하여 발전해 왔다.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큰 변화를 겪는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 우경(牛耕)의 시작, 상업의 발달, 화폐의 유통 등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제적 발전의 결과 제후국의 세수가 늘어났으며, 제후들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이민을 유치하는가 하면, 주변 국가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국토의 확장도 꾀하였다. 또, 신분보다는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으로 천민 출신에서 재상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p>

개정 교육 과정	한문 I	[I-이해-(3)] 한문 산문의 문체와 특징을 이해한다.
		설리문(說理文)은 사리(事理)를 밝히거나 시비(是非)를 가리는 문체를 말한다. 설리문에 속하는 문체로는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철학적 저술 등과 같이 장편의 저서(著書)를 통하여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천명하는 각종 사상류(思想類) 산문을 비롯하여 논(論), 변(辨), 설(說), 원(原) 등이 있다.
	한문 II	[II-이해-(3)] 한문 산문의 문체와 특징을 이해한다.
		(1) 설리문 '사상류 산문'은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철학적 저술 등과 같이 장편의 저서를 통하여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천명하는 글을 말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논어(論語)』, 『맹자(孟子)』, 『장자(莊子)』, 『순자(荀子)』 등이 있다.

위에 표에서처럼 7차 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에서 경서 혹은 사서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7차 교육과정 한문에서는 경서 혹은 사서의 교육이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이해와 교류증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문고전에서는 사상류 산문의 풀이에 중심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교류증진이라는 내용은 삭제되고 한문 산문의 문체와 특징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철학이나 사상을 천명하는 글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 기술상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목표가 바뀌었지만 교과서에 반영되는 사서경문의 제재는 분명 반복되고 있다.

또한, 사서의 교육은 각 교과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시가 교과서에 편성된 분량과 비교해보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 매우 소략함을 알 수 있다.

<표5> 한문교과서 四書 소단원과 漢詩 소단원

사서 소단원	한시 소단원	전체 소단원	출판사
28.논어초	12.이별, 13.산수, 14.인정	29 단원	교학사
12.더불어사는 삶	17.세월은 흐르고, 18.함께 할 수 없는 아픔, 19.넘어시여, 20.눈이 내리는데	24단원	금성
9.사람다운 마음의 회복, 10.사람다움을 보장해주는 정치	7.자연 속에 묻혀, 8.사상과 이별, 20.한문 유희와 회작시, 21.고단한 삶의 노래	26단원	대학서림
33.성현의 말씀	16.재미있는 시구, 17.회유와 충절, 18.산속의 한가로움, 19.그리움의정서, 20.봄비	39단원	대한
25.성현의 말씀	17.자연, 18.술회, 19.향수, 20.사회	39단원	두산
24.논어, 25.맹자	21.금강산, 尋隱者不遇, 22.秋思送人, 23.花石亭	35단원	새한
1.공자, 2.맹자	1.계절이 오는 소리, 2.이별의 정, 3.청평사에서, 4.우국의 정	37단원	정진
16.학문의 정신, 18.동양 사상의 탐색	13.봄의 서정, 이별의 아쉬움, 14.이별의 아쉬움, 15.나라를 위한 충정	40단원	중앙
22.대학 중용, 23.논어 맹자	18.계절의 서정, 19.삶의 길목에서, 20.화석정에서, 21.시에 얽힌 이야기	37단원	지학사
38.삶의 지혜, 40.군자의 즐거움	21.산에서 얻은 기상, 22.이별의 정회, 23.여성의 정감과 애환, 24.민중의 삶과 현실, 25.자유와 평화의 노래	40단원	천재

교과서의 소단원을 분석해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한시 단원은 한 개의 대단원과 3~4개의 소단원을 할애하고 있다. 경서는 제자백가를 포함하여 한시와 같은 한 개의 대단원이지만 사서만으로 한정했을 경우 1~2

개의 소단원을 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교과서 반영된 사서의 소단원은 한시의 절반 정도이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서 교육의 내용이 소략하게 진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4>는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사서를 포함하여 경서의 교육 내용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한시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영역별 교육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표6> 개정교육과정 해설서 한시관련 기술내용

[1-읽기-(7)] 한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1-읽기-(8)] 한시를 끊어 읽을 수 있다. [1-읽기-(9)]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1-이해-(6)]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1) 한시의 시체 (2) 압운법 (3) 평측법 (4) 대우법 [1-이해-(7)]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1-이해-(8)] 한시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사서의 교육 내용은 단지 문장이기 때문에 산문 영역에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학습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사서의 내용은 분명 산문이지만 일반 산문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사서의 경우 개념 한자·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이 있고, 때론 문장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미적 향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습하지 않았다면 경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으로 ‘詩’와 ‘文’으로 구별하고 문장 속에서 사서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사서에 대한 교육적 측면의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제재를 선택하고 학습요소간의 위계화, 조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중요하지’라는 생각만으로 사서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보다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서 교육의 학습 요소와 교육 내용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교육과정에서도 사서 교육 혹은 경서 교육에 대한 기초적 교육 내용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IV. 結論

지금까지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四書의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난 이유는 외부적으로 교과서의 위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과 내부적으로 한문교과교육으로 사서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중 교육과정의 목표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경문의 반복적 제재 선정, 경문 내용과 학습목표의 불일치, 교과서 구성의 문제, 사서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과정의 부재 등은 당면한 문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서는 한국한문학과 한문교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보편성과 한문교과교육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등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에서 교육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서의 교육 내용을 교육의 목적에 맞도록 제재를 선정해야하며 사서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생각처럼 단순히 ‘중요하다’라는 인식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서 나아가 경서에 이르기까지 한문교과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의 내용, 목표,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교육 내용과 영역을

보다 체계화 시켜야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사서 교육 혹은 경서 교육이 한문교과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參考 文獻>

『論語』, 학민문화사.

김경수 외, 『고등학교한문』, 교학사, 2001.

김상홍 외, 『고등학교한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박갑수 외, 『고등학교한문』, 지학사, 2001.

신표섭 외, 『고등학교한문』, 대학서림, 2001.

안재철 외, 『고등학교한문』, 대한교과서, 2001.

유성준 외, 『고등학교한문』, 새한교과서, 2001.

이명학 외, 『고등학교한문』, 두산동아, 2001.

이수철 외, 『고등학교한문』, 정진출판사, 2001.

이희목 외, 『고등학교한문』, 천재교육, 2001.

최상의 외, 『고등학교한문』, 금성출판사, 2001.

교육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김왕규, 「한문 교육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서설」, 『대동한문학』 제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김은경, 「대학 읽기의 전통적 관점과 한문 교과서 수용 양상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1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손인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논어의 해석에 대한 연구」, 『한문학논집』 제27집, 근역한문학회, 2008.

송석준·최윤용, 「중등한문교과서에 나타난 仁사상의 교육적 의미」, 『교육연구』 제14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송영일, 『한문 교육론』, 장서원, 2004.

원용석,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내용 및 수준문제 고찰」, 『한자한문 교육』 제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4.

- 원운숙,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사서경문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동재,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한문교과서 개발의 방향」, 『한자한문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 장호성, 「한문과 교재의 문제」, 『한문교육연구』 제2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Abstract

*Review on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The Four Books in
Classical Chinese Textbook of High School / Lee Don Suk**

The course of Four Books in Classical Chinese subject education has different feature from the one in Classical Chinese classics in Korea. The reason of this difference is that the course of education is made by the textbook of High school. It finally means that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Four Books in High school should be selected by fitting the subject according with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hen should be applied toward high efficiency of education.

This thesis will find problem about such an education on The Four Books in High school and seek way for ideal education of The Four Books. And this will find difficulty for selecting subjects in current education for The Four Books and suggest new model for comprising test book contents. The Four Books is basic educational sector in Chinese classics as well as in Chinese education. There, however, is currently not enough explanation about The Four Books in the course of Education. Thus,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contents of Chinese Education for The Four Books as well as The Confucian classics should be suggested in the course of Education in High school.

【Key words】 The Confucian classics, The Four Books, Selection of Subject,
Comprise of Textbook, Education for The Four Books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

* Wonkwang University, Instructor / ehstjr@hanmail.net